

호너우두기 머리를 깎은 이유

서경태
IAEA 핵물질사찰관

월드컵으로 인해 한동안 온 세상이 시끄러웠다.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을 보면 월드컵이 인생의 전부인 양 폭 빠져있는 사람도 있었고, 월드컵을 이용하여 한몫 단단히 잡아보겠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낸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다. 무리한 방송 중계로 인해 거대 방송사들이 비난을 받았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러나 4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전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의 신기에 가까운 묘기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월드컵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틀림이 없다.

또한 한국 축구의 실력도 상당히 발전하여 당당히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서며 훌륭한 경기를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국민들도 한마음이 되어 응원을 보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자부심과 애국심을 심어 준다는 것에 의미를 더는 사람 없을 것이다.

이번 월드컵은 필자가 살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이웃나라인 독일에서 개최를 했다.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이번 기회에 응원을 통해 한국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곳 유엔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이 마음을 모아 월드컵 관전을 계획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입장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 독일 현지에서의 관전은 포기를 하고 각자 형편에 따라 한국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보내기로 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재(在)오스트리아 한국 교민회가 주최하는 응원전에 참가하여 응원을 하고, 필자같이 게으른 사람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응원을 하였다.

국가별 대항인 월드컵에서는 국가 간의 대결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만, 선수 개개인의 실력도 단연 주목의 대상이 된다. 꾸준한 실력과 체력 관리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팬들의 사랑을 받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나이에 따른 체력의 한계로 인해 팬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선수, 또는 혜성같이 나타나 숨은 실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스타로 각광을 받는 선수 등등 월드컵은 선수들의 경연장이라고도 할 수 있다.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나라로는 단연 브라질이 있다. 맨땅의 골목길 축구에서 꿈을 키우며 수많은 피와 땀의 결과로 신기에 가까운 발재간을 보이는 브라질 축구 선수들의 경기는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최근에 호나우딩요 같은 선수가 혜성같이 나타나 호나우두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십 여년 동안 브라질의 대표 선수하면 호나우두를 꼽을 수 있다. 호나우두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겠지만, 지난 한·일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우승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유럽 축구 리그에서도 천문학적인 몸값을 받으며 아직까지도 활약을 하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 중의 한 명이다.

이런 호나우두도 상대팀 수비수들의 심한 견제에 따른 잦은 부상과 훈련 부족으로 예전과 같은 기량을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찢러 들어오는 공을 받아 두 세 명의 수비수를 짓히고 공을 골에 넣는 것을 보면, 그의 축구에 대한 천재성을 의심하기는 힘들다.

이번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부터 호나우두는 살이 많이 찌고, 그에 따라 발바닥이 찢어지는 부상으로 인해 제대로 실력을 발휘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브라질 팀 전력에도 차질을 빚어 브라질이 우승을 못 할 것이라는 소문에 휩싸이는 등 호나우두는 아직도 브라질의 대표 선수로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런 호나우두의 모습을 보면 항상 머리를 깨끗하게 삭발한 모습이다. 하지만 호나우두가 처음부터 머리를 삭발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보통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유행에 따라 머리를 길러 모양을 내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면 호나우두는 왜 머리를 삭발했을까? 흑인들과 같이 머리카락이 날카롭게 살 속을 파고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 데에 거추장스러워서? 이런저런 원인이 아니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호나우두도 다른 스타들과 마찬가지로 유명해지고 난 후부터 여러 곳으로 초청을 받는 일이 많

아졌다. 어린아이들의 우상이 된 호나우두는 특히 학교나 고아원과 같이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곳과 고통과 싸우고 있는 병원 같은 곳에 초청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하루는 호나우두가 소아백혈병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방문하였다. 백혈병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사인을 한 공도 선물하고, 공을 차는 묘기도 보이며 위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호나우두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아저씨 머리는 왜 그래요? 우리들하고는 틀리네요.”

그 말을 들은 호나우두가 병실 안을 둘러보니, 어린 백혈병 환자들의 머리는 모두 삭발한 모습이였다. 그 모습에 충격을 받은 호나우두는 그 어린이에게 “그래, 이 아저씨가 다음에 올 때는 너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올게.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나를 텔레비전이나 운동장에서 보더라도 항상 너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거야.”라고 약속을 했다.

호나우두는 삭발을 하고 그 병원을 다시 찾았고, 그 이후 항상 삭발을 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또 다른 유명한 축구 선수인 로베르토 카를로스도 삭발을 하기 시작했고, 몇몇 축구 선수들도 동참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는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비록 16강에 들지는 못했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에너지가 창출되고 있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 진정한 스포츠 경기는 사람들에게 꿈과 감동을 선사한다. 이번 독일 월드컵에서도 각국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구촌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 선전(善戰)이 지구촌의 아름다운 경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